

## 모바일 세상의 중심에서 즐거움을 외치다

**피** 하지 못한다면 즐거워!  
모바일 솔루션 전문기업 인프라밸리를 이끌어 가는 기술 연구소 내 연구2팀의 무시무시한 내공이 느껴지는 한 마디다. 하루가 멀다 하고 업그레이드되는 모바일 기술 현장의 최일선에서 항상 웃으며 즐겁게 일하는 것이 이들과의 막무가내 전략이자 핵심 기술이다.  
기발한 아이디어가 최첨단 기술을 만나 탄생한 모바일 손금서비스와 애견통역서비스로 업계의 주목을 받은 벤처 고수 22명. '우리는 회사의 일꾼'이라 즐거이 자처하며 '군말 없이 일한다'고 서슴없이 말하는 이들의 애사심과 책임감은 유별나다. 먼저, 사무실에서 연구할 때에는 웃는다. 둘째, 내 일이 아니더라도 내 일처럼 웃으면서 한다. 심지어, 잦은 출장에서 무슨 일이 생겼을 경우에도 웃으면서 해결한다. 이 유쾌한 일꾼들의 일터는 넓은 바다와 닮아 있다. 출장 때에는 수평선 너머로 물이 빠진 듯 썰렁하다가 어느 사이엔가 이 바다는 귀사한 사람들의 웃는 얼굴들로 가득 차오른다. 이때가 바로 회식의 절묘한 타이밍. 조용하고 자율적인 업무 분위기가 술자리로 그대로 옮겨진다. 서로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되 술은 권하지 않는 것.

그렇다고 이들을 연구나 업무에만 매달리는 샌님으로 봤다간 큰코다친다. 무쾌나 다름없는 승물을 자랑하는 사내 축구 동호회 회원 중 8명이 연구2팀 소속. 팀 내 여사원들의 파워와 인기는 이에 못지않게 막강하다. 기혼, 미혼에 상관없이 시간 관리에 철저하며 업무 집중도가 뛰어난 것은 물론이거니와 일 처리 잘하기로 사내에 소문이 자자하다. 매년 회사 내에서 실적과 성실을 기준으로 뽑는 '인프라밸리인상'에 올해에는 동물로 2명이 뽑혔는데 모두 연구2팀 팀원이다.  
이 조용하고도 무서운 팀원들의 든든한 정신적·물질적 지주 유덕재 팀장은 조용히 팀을 진두지휘한다. 농구, 탁구, 테니스, 인라인, 사진 등등의 취미 박사 유덕재 팀장이 밝히는 작은 소망은 팀원들에 대한 그의 애뜻한 애정을 보여준다.  
"팀원들 모두가 취미 하나쯤은 가졌으면 하는 소망이 있어요. 스스로가 즐기는 취미 하나는 일상의 윤희유가 되어줄 뿐 아니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확실한 돌파구가 되어주거든요."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제일이라는 이들, 현재 회사의 주력 상품인 진흥광 솔루션을 세계 시장에 수출하겠다는 목표를 밝히는 이들의 웃는 얼굴에는 순간 단호한 결의가 번뜩인다.

### 그들만의 수상 대전, 수상자들의 재치있는 소감 한 마디

#### 주신(酒神)공동수상

**임현석 선임**: 술 한 잔 먹어줬을 뿐인데, 훗~

**박정희 주임**: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풀?!

**분위기에이커상 한정희 주임**: 무슨 말을 해도 위트가 넘치는 카리스마의 힘이랄까요.

**베스트드레서상 양은경 주임**: 최소한의 예의를 지킬 뿐이에요. ㅎㅎ.

**백만돌이상 김경아 연구원**: 삼시 세끼 꼬박 꼬박 먹어준 덕분이죠.

**자이도취상 오지훈 연구원**: 술 No, 담배 No! 오늘도 나만의 세계에 빠진다.

**물질적지주상 유덕재 팀장**: 오늘도 내가 쓴다!

◀ 왼쪽부터 박정희 주임, 한정희 주임, 임현석 선임, 양은경 주임, 김경아 연구원, 오지훈 연구원, 유덕재 팀장